



2차 자신학화 포럼

한국교회 자신학의 과거, 현재, 미래

평창 켄싱턴 호텔
10.04(월)~07(목)

2th

자신학화 포럼 위원회
Self-Theologizing Forum

자신학화와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사, 전제 재고, '제3의 길'

이재근(광신대학교 교회사)

I. 한국 복음주의 선교계의 자신학화 연구사

1. 한국 복음주의 선교계의 자신학화 논의의 역사: 시발, 설악포럼과 KWMA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은 한국 복음주의 선교계의 선교학 연구사에서 나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전까지 간헐적으로 선교학자나 현장사역자 소수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기되거나 소규모로 논의되던 '자신학화'라는 주제가 한국 선교계 전면으로 부상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선교활동가들의 연례 연구모임인 '설악포럼'에서 선교학자 권성찬, 한국개신교 교회사가 이덕주, 선교학자 한철호 등의 자신학화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이어서 설악포럼 위원들은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의 역사라는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 대구 만촌1동 성당으로 한국천주교 교회사가 이성배 신부를 찾아가 강의를 들었다. 이슬람과 관련된 자신학화 논의의 한 사례로서 미국 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와 독일 교회사가 한스 쿡의 책과 논문을 함께 공부하기도 했다.¹

이런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2013년 8월에 발간된 한국선교연구원(KRIM)의 학술지 「현대선교」 제15호는 '자신학화'를 특별주제로 정하고, 안점식와 최형근의 두 논문을 실었다. 이 학술지의 특집 주제를 소개하면서, 당시 한국선교연구원의 원장이자 학술지 편집자였던 문상철은 자신학화의 정의와 특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간명한 설명이지만, 복음주의 선교계가 대체로 수용하고 합의하는 내용이자, 이후 추가로 진행된 복음주의

¹ 연례 설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라.

http://missionpartners.kr/main/gmb_board.php?page_no=51.

선교계의 자신학화 논의의 출발점으로 보여 여기 인용한다.

한국교회는 자치, 자립, 자전의 삼자원리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삼자원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학적인 자주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신학적으로도 자생적인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우리는 신학적으로 의존적(dependent)이어서도 안 되고, 독립적(independent)이어서도 안 되고,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신학화는 다른 교회들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내면서 자주적인 신학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교회와의 교류를 하면서도 로컬한 상황에 충실한 신학하기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²

같은 학술지에서 안점식은 “한국교회 자신학화(self-theologizing)의 방향모색”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다. 여기서 그는 “자신학화는 신학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 of theology)를 의미”한다는 정의를 내렸다. 선교학에서 이미 널리 합의된 주제인 상황화의 적절성이 신학 영역에서도 연장되어 적용되는 것이 자신학화라고 설명했다. 복음주의권의 상황화 논의는 변하지 않는 텍스트(text)로서의 복음을, 변하는 상황(context)에 적실하게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였다. 같은 맥락에서, 안점식은 복음주의권에서 자신학화 논의를 가장 먼저 대중화시킨 미국 선교학자 폴 히버트를 인용하여,³ 시공간의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성경 텍스트의 핵심 메시지로 구성된 메타신학(meta-theology), 초문화적 신학(supracultural, transcultural theology), 보편신학(universal theology), 혹은 범세계적 신학(global theology)에 대한 합의가 자신학화 논의 이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후에 상황화되고 토착화된 지역신학(local theology)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각국, 각 민족, 각 시대에 타당하고 건강한 선교신학, 즉 자신학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

최형근의 논지도 안점식의 것과 다르지 않다. 최형근은 히버트의 ‘비판적 상황화’(critical contextualization), 케빈 밴후저(Kevin Vanhoozer)의 ‘신학의 글로벌화’(globalizing theology), 로버트 슈라이터(Robert J. Schreiter)의 ‘새로운 보편성’(the new

² 문상철, “권두언: 자신학화,” 『현대선교』 15 (2013.08): 5.

³ Paul G. Hiebert,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Grand Rapids: Baker, 1985), 216-219. 폴 G. 히버트, 『문화 속의 선교』, 채은수 역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7), 273-277.

⁴ 안점식, “한국교회 자신학화의 방향 모색,” 『현대선교』 15 (2013.08): 7-35.

Catholicity), 찰스 밴 엔겐(Charles Van Engen)의 '인식론적 재상황화'(epistemological recontextualization) 등의 개념을 활용한다. 그런 후에 최종적으로 "결국 자신학화는 교회의 보편성을 인식하는 지역교회들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의 해석학적 순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제목에서 보듯, 그는 이를 다른 말로 '신학의 글로컬화'라고 표현했다.⁵

2013년에 「현대선교」에서 다루어진 자신학화 논의가 이듬해 2014년 7월에도 이어졌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VI)와 권역별선교전략회의(RCOWE I)가 자신학화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한국 선교계에서 처음으로 이 주제에 대한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발표된 발제문들이 수정을 거쳐 그해 가을에 발간된 「한국선교KMQ」 51호⁶에 실렸다. 여기에 실린 글은 무려 14편인데, 이를 크게 총론을 다루는 글과 각론을 다루는 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신학화와 자선교학의 이론과 본질, 내용, 방법론, 사례, 설문 리서치, 전문인선교와의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 총론격 논문 8편과 특정 지역(싱가포르, 아랍,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중국, 태국, 무슬림)의 사례를 다룬 각론격 논문 6편이다.⁷

각론격 논문들에서 다루진 지역별 사례들은 각국 역사와 문화 상황의 차이가 커서 일반화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여기서는 총론형 논문들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유사한 주제를 다룬 총론이라고 해도 저자가 다양하므로 과도한 일반화는 피해야한다. 그러나 총론으로 발표된 8편의 저자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⁵ 최형근, "세계화와 자신학화: 신학의 글로컬화에 대한 소고," 「현대선교」 15 (2013.08): 39-57.

⁶ 「한국선교 KMQ」 14:1 (통권 51 호), 7-181.

⁷ 실린 논문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김연수,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 이슈와 필요성," ② 성남용, "자신학과 자선교학의 본질과 내용," ③ 안성호,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의 발전 배경과 현황: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④ 조명순,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 정립을 위한 리서치," ⑤ 임종표, "자신학화-자선교학화가 한국 선교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연구," ⑥ 신경규, "선교신학에 있어서 본문과 상황의 통전성," ⑦ 김활영, "한국선교사들의 신학교육 사역에 대한 반성," ⑧ 고광석, "자신학화'를 넘어'초문화 신학화'로," ⑨ 문누가, "전문인 선교 자신학화를 위한 신학적 방법론," ⑩ 공요셉, "아랍의 신학과 자신학화," ⑪ 김형욱,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형 선교전략: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⑫ 한수아, "중국교회의 적합한 자신학화를 돕기 위한 선교적 필요," ⑬ 김중식, "태국 교회의 자신학화에 관한 제언," ⑭ 하영광, "징검다리 접근법을 통한 무슬림 선교 전략."

①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지 130년이 넘어, 완전한 자립과 자치, 자전을 이뤄낸 한국 교회는 이제 자신학화(자선교학화 포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② 19세기 중후반에 영미 선교전략가 루퍼스 앤더슨(Rufus Anderson)과 헨리 벤(Henry Venn)이 서양교회의 선교로 탄생한 선교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필수 선교 전략으로 구축한 삼자원리(자전, 자립, 자치)는 성경적인 동시에,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도 건강한 이론이었다.

③ 한국교회(정확히는 장로교회)에서는 앤더슨과 벤의 삼자원리를 자기 식으로 소화하여 이론화한 재중(在中) 미국장로회 선교사 존 네비어스(John Nevius)의 선교정책이 초기 재한 선교사들에게 전수된 후, 한국장로교회의 공식 정책이 되었다. 이 정책은 한국 장로교회가 서양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빠르게 삼자를 실현하여 자율 교회가 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④ 네비어스 선교정책은 선교사들과 세계 선교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인 대다수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세계선교 역사상 가장 훌륭하게 적용되어, 실제 한국교회의 예상치 못한 성장과 빠른 자립에 크게 기여한 이론이었다는 것이다.

⑤ 한편, 1945년 2차 대전 종결과 1950년대 비서양 식민지 국가들의 연이은 독립으로 탈식민지 분위기가 익어갔다. 이에 세계기독교계와 선교계에서도 선교지 교회의 제도적 자립과 자치, 자전뿐만 아니라, 지적, 정서적, 문화적 토착화와 현지화를 강조하는 의식과 논의가 많아졌다. 특히 1910년 에든버러선교대회를 계승한 국제선교협의회(IMC),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이 시기에 비서양 선교지 교회들에 대한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와 승리 및 정복주의(triumphalism)를 반성했다. 이런 맥락에서 신생 교회(younger churches)의 토착화, 상황화도 강조되기 시작했다.

⑥ 서양 사상과 문화 전반에서 급진적 변화가 휘몰아친 1960년대 이후에는 해방신학, 사신(신의 죽음) 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정치신학 등의 상황화 신학이 에큐메니컬 진영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선교지와 제3세계 차원에서는 이런 상황화 신학의 일환으로, 남미 해방신학, 한국 민중신학, 태국 물소신학⁸, 인도신학 등이 널리 소개되었다.

⑦ 에큐메니컬 선교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이런 상황화 신학은 1980년대까

⁸ 일본인 신학자 코스케 코야마(Kosuke Koyama)가 태국 불교문화를 배경으로 기독교 신학의 상황화를 논하며 주창한 아시아신학의 한 유형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아시아신학 논의에 속한다. Kosuke Koyama, *Waterbuffalo Theology* (Maryknoll, NY: Orbis Book, 1974).

지도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의혹의 대상이었다. 이런 종류의 신학이 2천 년간 전수된 정통 신학의 권위를 위협하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여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⑧ (그러나) 복음주의 학계와 선교학계에서도 서양 문화(혹은 문명)를 기독교 문화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를 전제로, 각 지역 문화와 토양에 맞게 토착화되고 상황화된 (복음주의/보수) 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통찰을 갖게 된 트리니티신학교 선교학 교수 폴 히버트가 대표적이다. 그는 1985년에 모든 지역교회에는 삼자에 더하여 '네 번째 자아'(the fourth self)로서 '자신학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⑨ 히버트의 주장이 복음주의 선교계에 서서히 대중화되면서, 선교학자 다수와 역사학자 일부가 이 논의를 확장시켰다. 2000년대에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선교분과 위원장 윌리엄 테일러(William Taylor)가 '다섯 번째 자아'로 '자선교학'(self-missilogizing)을 언급했다.⁹ 이후에는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가 쌍둥이처럼 논의에 자주 동시 등장했다.

⑩ 1980년대에 논의가 시작되고, 2000년대에는 더 확장된 세계 복음주의 선교계의 자신학화 논의는 한국에서는 2010년대 들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세계 선교계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이 주제가 한국에서는 20~30년이 지난 후에야 회자된 것에도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특정 학문 주제가 등장한 후 빨라도 한 세대 정도가 지나야 한국에서 유통되는 패턴이 있다. 또한 자신학화라는 주제는 이제껏 에큐메니컬 진영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주로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특히 한신 계열의 1970년대 민중신학과 감신 및 연신 계열의 토착화신학 논쟁을 목격한 한국 보수 신학계는 자신학화 논의가 이런 '자유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상황화 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했다.

⑪ 문화적, 신학적 보수성, 서양 사대주의, 성장주의, 부패, 윤리성 상실 등의 문제를 안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오늘날 실정에서, 자신학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고, 한국의 동시대적 토양에 맞는 신학과 문화, 선교학을 계발하고, 이로써 미래 세대에 건강한 기독교 신앙과 신학, 문화의 유산을 전수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⁹ 윌리엄 D. 테일러 편, 『21세기 글로벌 선교학』, 김동화 외 역 (서울: CLC, 2004), 925.

2. 한국 복음주의 선교계의 자신학화 논의의 역사: 계승, 자신학화 포럼

2013~2015년에 한국 선교계에 집단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자신학화 논의는 이후 간헐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다 2020년에 '자신학화 포럼'이라는 이름의 '반추하는 실천가들의 모임'이 탄생하면서, 정기적으로 생산적인 토론과 대화가 가능한 장이 열렸다. 자신학화 포럼의 구성원들의 문제의식은 포럼의 결성 배경에 대한 다음 설명에 나타난다. 이는 지난 2013~2015년 포럼 및 대회 참가자들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

전통적으로 이해해 온 삼자(자전, 자치, 자급) 원리가 표면적으로 성취된다 할지라도 선교지 교회의 자신학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생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공동체로 성숙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목도하였다. 달리 말하면 진정한 자신학화가 없다면 진정한 자립도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반추하는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들을 중심으로 자신학화 혹은 자선교학화에 대한 반추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¹⁰

2020년에는 4일간 진행된 첫 포럼에서 6명이 서로 다른 주제로 발제를 했다. 포럼 폐회 후에는 네 차례에 걸쳐 단회성 정기 세미나가 개최되었다.¹¹ 이 포럼을 운영하는 위원들에는 이미 2012년부터 진행된 설악포럼 등의 자신학화 논의 과정에 참여한 이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학화 포럼'은 연례 '설악 포럼'이 다룬 다양한 선교 관련 주제 중 '자신학화'만을 따로 떼어 내어 전문화시킨 연구 모임이다. 그러나 선교계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이들도 포함된 모임이므로, 첫 자신학화 포럼에서는 정민영의 "자신학화 논의의 배경과 의의"라는 글이 가장 먼저 발표되었다. 이 글은 2012년 이래 진행된

¹⁰ <https://stf.kr/6?category=941407>.

¹¹ 포럼과 세미나 내용을 알 수 있는 설교, 발제의 녹화 파일과 강의안은 <https://stf.kr/category/%EC%A0%9C1%EC%B0%A8%20%EC%9E%90%EC%8B%A0%ED%95%99%ED%99%94%20%ED%8F%AC%EB%9F%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포럼과 정기세미나 자료집이 최근에 자신학화 포럼위원회 편, 『자신학화』(제 1차 자신학화 포럼 및 정기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2021)로 발간되었다.

한국 선교계의 자신학화 논의의 배경과 과정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면서, 참여자에게 포럼의 성격을 알려주는 기초강연, 혹은 서론에 해당하는 글이었다.¹²

두 번째 발제문은 이 포럼이 기존 선교학계의 논의보다 한층 진일보한 면을 보여준 획기적인 기획으로 보인다.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신학에 대한 기본 인식을 가진 철학자(부산대 주광순 교수)가 “상호문화철학과 자신학화”라는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 글은 신학계, 그 중에서도 선교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문화 간(intercultural, cross-cultural) 소통에 대한 연구가 철학계에서도 상호문화철학이라는 분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신학계의 연구가 주류 학문계와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발제자가 그런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신학교에서 ‘선교학’(missiology, mission studies)으로 여전히 표기하고 있는 학문을 복음주의 학계를 포함한 서양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초문화, 상호문화, 타문화 연구’(intercultural studies)로 지칭하고 있었다. 지난 19세기 제국주의 선교시대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주광순의 논문은 선교학계의 자신학화 논의가 철학이나 인류학을 비롯한 다른 인문학과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¹³

이어지는 세 글은 2014년 KWMA 대회 및 「한국선교KMQ」 51호에서 발표된 글들과 외형상으로 유사하지만, 당시 다른 주제들의 이면을 다뤘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창수는 “한국교회 성장과정에 나타난 ‘자신학’ 부재 원인과 현상 관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히하게도 공학자 이정동의 주장을 인용한다. 이정동은 한국 사회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실행역량이 뛰어나 속도와 효율성에서 눈에 띄는 성공을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 실행의 뿌리이자 기반인 개념설계역량에서는 전통적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한국교회에 대입하면서, 정창수는 교회성장의 가시적이고 양적인 지표들은 한국 기독교인의 탁월한 실행역량을 보증하는 듯하지만, 개념설계역량에 해당하는 신학형성, 즉 자신학화 능력은 크게 모자란다고 평가한다.¹⁴

이어서 이슬람 배경에서 기독교가 자신학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김철수와 권성찬은

¹² <https://stf.kr/8?category=941442>.

¹³ <https://stf.kr/9?category=941443>. 최근 주광순은 참석자가 모두 기독교인인 자신학화 포럼에서 발제한 자신을 글을 철학계 연구자들을 위해 완전히 개정하여 철학 학술지에 실었다. 주광순, “상호문화철학과 자신학화(self-theologizing),” 「대동철학」 94 (2021.3): 393-421.

¹⁴ <https://stf.kr/10?category=941444>.

각각 “인간의 ‘보통성(Ordinariness)’ 개념을 통한 이슬람 연구 방법론에 관하여”와 “이슬람의 상황에서 자신학화 기독교론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탐구한다. 김철수의 글에서 돋보이는 점은 흔히 서양인이나 비이슬람권 외국인이 보이는 이슬람에 대한 일반화된 편견, 혹은 서양학문의 방법론에 근거한 접근이 실제로는 보통 무슬림들의 일상과 실천과는 괴리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런 이슬람과 무슬림의 일상성과 보통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이슬람에 대한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에 기여하는 첫 걸음이라고 지적한다.¹⁵

권성찬은 이슬람과 기독교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신학 이슈 중 하나인 기독교론을 이슬람 배경에서 자신학화하는 문제를 고민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정통 기독교론이 주로 4-5세기 그리스 배경에서 형성된 교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교리에 담긴 그리스 철학과 세계관의 용어와 개념을 무슬림에 친화적인 용어와 개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¹⁶

마지막으로 현직 목회자로서 교회의 선교분부를 책임지고 있는 김홍주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자신학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사회적인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체질 개선 역시 일종의 자신학화 과정인데, 이를 위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선교적 본질 회복, 교회의 공공성 회복,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 환경에 대한 관심의 회복,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시대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⁷

‘자신학화 포럼’은 제1차 포럼을 2020년 9월에 개최한 데 이어, 약 1년 기간 안에 네 차례에 걸쳐 정기 세미나를 열어 자신학화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했다. 특별한 점은 주로 선교학적 접근이 주류였던 지난 수년간의 방법론과는 달리, 이 세미나들은 주로 한국교회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학화의 사례를 모색했다는 데 있었다. 같은 해 11월 9일에 열린 1차 정기 세미나는 한국교회사 원로 사학자 이만열을 초청하여, 단재 신채호의 생애를 통해 민족의식과 역사연구와의 상관관계를 살폈다. 김교신의 삶을 통해 조선산 기독교의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기독교인이 아닌 신채호가 자신학화 논의에

¹⁵ <https://stf.kr/12?category=941446>.

¹⁶ <https://stf.kr/13?category=941447>.

¹⁷ <https://stf.kr/11?category=941445>.

소환된 것이 특이하다. 그러나 신채호는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와 사상을 주체적으로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반대로 그 사상들에 늘 종속되고 지배당하는 한국인의 기질을 비판했다. 이 비판은 한국 기독교의 자신학화를 추구하는 이들의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한다. 이만열이 인용한 신채호의 1925년 「동아일보」 기고문 “낭객의 신년만필”의 구절은 이 점에서 직접 인용할 가치가 있다.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를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나,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哭)하려 한다.¹⁸

이만열은 신채호의 주체적 민족주의가 너무 과도하여 자민족 우월주의나 국수주의로 흐른 위험을 지적한다. 그러나 신채호가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고 성실하게 고민했던 그 노력은 자신학화를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준다고 평한다.

이만열은 이어서 일제강점기 기독교인으로서, 일본에서 우치무라 간조에게서 무교회주의 신앙을 배운 후 귀국한 김교신을 다룬다. 김교신은 노동자로 일하면서 선교사의 지배를 벗어난 주체적 조선산 기독교를 세우려 노력했다가 비명횡사했다. 특히 이만열은 김교신이 과거 2천년 교회사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독립만을 강조한 배타적 민족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양 선교사들이 그들의 문화 상황에서 그들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며 주조한 기독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 ‘성서’를 직접 읽고 공부하며, 그 성서 위에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내면서, ‘성서 위에 세워진 조선’(성서조선)을 건설하는 것이 김교신의 의지였다고 주장

¹⁸ “낭객의 신년만필” 전문은 다음을 보라.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title=%EB%82%AD%EA%B0%9D%EC%9D%98_%EC%8B%A0%EB%85%84_%EB%A7%8C%ED%95%84&oldid=124579.

했다.¹⁹

조선산 기독교를 건설하려 애쓴 김교신의 생애와 노력이 청중들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것 같다. 이듬해 2021년 2월 8일에 열린 2차 정기세미나도 “김교신의 역사 인식”이라는 주제로 김교신 연구자 김은섭이 발제했다. 김은섭은 김교신의 삶과 신앙의 중심부에 위치한 정기간행물「성서조선」의 글을 분석하며 김교신의 조선산 기독교의 본질을 고찰한다. 간행 초기에 김교신은 ‘조선 김치 냄새나는 기독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 조선산 기독교가 성서의 기독교 및 역사적 기독교에서 유리된 조선만의 기독교, 조선적 기독교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는 나중에 무교회주의라는 명칭이 오용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전적 기독교’와 ‘순전한 기독교’를 표방했다. 김교신에 따르면, 이는 성서 위에 서서 “죽음에 직면한 이 시대에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양망하고 정묵(靜默)하여 인종(忍從)함으로써 무위(無爲)의 삶을 사는” 기독교였다.²⁰

한국교회사 속에서 자신학화를 구현하려고 노력한 인물들의 사례를 살펴보려 했던 자신학화 포럼의 의도는 2021년 3월 15일에 열린 제3차 정기세미나에서 다뤄진 인물이 함석헌이었다는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함석헌은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 유학 시절에 김교신, 송두용 등과 함께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귀국 후 김교신과 함께 「성서조선」창간과 집필에도 관여했다. 그러나 일제 말기 투옥 중에 불경을 읽고, 해방 후 노자를 읽으면서 한국 전통 종교사상과 기독교의 융합을 고민했다.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에 관여하면서 퀘이커의 평화주의에도 마음을 쏟았다. ‘씨알’(백성) 사상을 통해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종교들과 한국사를 주체적이고 민중 중심으로 해석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이 사상에 대한 외부의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한국 기독교 자신학화의 한 사례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²¹

2021년 6월 7일에 열린 제4차 정기세미나에서는 다시 실천적인 주제가 다루어졌다. “한국교회의 자신학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선교사의 잠재력분석”이라는 발제문에서 변진석(GMTC 선교훈련원)은 선교사들은 타문화에 살면서 타인종, 타민족과 교류하며 사역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며 의미 있는 변화와 변형을 경험하게 된다. 이

¹⁹ <https://stf.kr/30?category=969780>. 강연 내용과 행사 분위기를 전한 다음 글도 참고하라. 김재완, “자신학화 포럼 정기 세미나 2020.11.9.@새물결플러스: 지금-여기 한국교회의 자신학화를 위하여” 「월간목회」(2020.12): 240-245.

²⁰ <https://stf.kr/44?category=969781>.

²¹ 목사이자 함석헌 연구자인 김진(글로벌 블레싱 상임대표)이 발제했다. <https://stf.kr/42?category=986341>.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개방성과 유연한 사고력이라는 잠재력이 한국교회 자신학화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²²

II. 전제 재고: 한국 선교계 자신학화 논의에 대한 평가

2012년부터 10여 년간 지속된 한국 선교계의 자신학화 실현에 대한 고민과 노력으로 우선은 선교학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 선교단체 핵심 지도자와 선교 현장 사역자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므로, 실제 선교 교육 현장이나 해외 선교지에서 시도할 만한 구체적인 통찰도 적지 않아 보인다. 또한 토착화, 상황화, 자신학화에 대한 논의가 신학적으로 개방적인 에큐메니컬 진영만의 유산일 수 없음에 대다수 복음주의권 선교학자와 활동가들이 동의하는 발전도 있었다. 선교학계의 이론적 통찰이 신앙을 전제하는 종교의 영역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상호문화철학 같은 철학, 문화의 교차성을 강조하는 인류학 등의 주류 인문학계와도 교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성과도 있었다.

최근에는 한국교회사 내에서 드문 자신학화의 사례를 찾아내어 오늘의 교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수차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한국 교회 전반이 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극히 보수적이어서, 서양인 선교사와 유학파 신학자에 의해 수입된 서양신학을 표준이자 보편 신학으로 믿고, 거기에 여전히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대략 합의된 전제가 있다. 이를 위해 신채호, 김교신, 함석헌 등을 소환하여,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한국적인 신학을 구축하기 위한 모범을 찾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 전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고려할 사항이 있다. 우선, '수입된 서양신학'이라는 표현 안에 담긴 무조건적이고 이분법적인 비판과 거부 정서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수입'이라는 단어와 '서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 수입은 외부로부터 어떤 것이 반입되어 소개되고 소유되는 것을 뜻한다. 고체로 된 어떤 물건의 경우에는, 수입된 후 파기될 때까지 그 외양이 대체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사상이나 문화와 같은 무형의 실재인 경우, 그 외양이 언제나 수입된 그대로 유지되고 지속되지는 않는다. 팔레스타인의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아람어로 가르침을 받은

²² <https://stf.kr/46?category=1002624>.

제자들이 그것을 로마와 안디옥과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스어로 전했을 때, 로마와 안디옥과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변형이 전혀 없는 고체형 수입품처럼 받아들였을까? 로마제국 동쪽에서 그리스어로 신약성경 읽고 들으며 복음을 배운 이들이 이를 라틴어를 사용하는 제국의 서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수입된 메시지를 들은 이들의 이해는 메시지를 수출한 이들의 이해와 완전히 같았을까? 그리스(그리스어)-로마(라틴어)의 용어와 세계관으로 해설되고 체계를 입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로마의 선교사들이 제국 국경 북쪽의 토데미즘 세계에 사는 다양한 게르만 민족들에게 전했을 때, 그 게르만인들은 기독교 교리의 내용물과 포장재를 그대로 수입했을까? 19세기의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들의 토양에서 자라서 수확한 기독교라는 농산물을 중국인에게 수출했을 때, 이를 수입해서 섭취한 중국인은 그 농산물을 미국인처럼 똑같이 소화할 수 있었을까?

'수입'과 '수출'이라는 개념에 대한 의문은 '서양'이라는 개념에 대한 의문으로도 연결된다. 1세기 팔레스타인, 2세기 그리스, 4세기 로마, 5세기 게르만계 유럽, 16세기 종교개혁기 독일과 스위스, 19세기 영국과 20세기 미국으로 연이어 '수출'되고 '수입'된 신학은 그저 19세기 '서양'의 신학이기만 한 것일까? 2천 년간 진지한 의도를 가진 기독교인 공동체가 수많은 공교회적 토론과 회의와 합의를 거쳐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의 기준을 정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문서와 예전으로 틀을 만들어 다음 세대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전달자가 '서양'에서 나고 자란 인물이라면, 그들이 전해 받은 그 메시지는 그저 '서양'에서 '수입'하기만 것일까? 그 메시지를 서양의 수출품이라기보다는, 비록 완전한 원형은 아니라고 해도, 원형의 손실을 최소화해서 '전승'된 '보편적'이고 '공교회적'인 메시지로 인식할 수는 없을까?

요컨대, 고정적이고 변치 않는 복음(텍스트)과 시공간별로 변화무쌍한 문화(컨텍스트)의 관계를 고려하며 교회의 역사와 현실을 평가할 때, 과도한 일반화나 편견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근래 복음주의권 자신학화 논의가 활기를 띤 이유는 지금껏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양인 선교사들이 전해 준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옳고 보편적인 기독교의 표준으로 인식한 데 대한 반성이었다. 이런 태도가 한국교회 내부적으로는 서양신학에 대한 사대주의적 태도, 근본주의적 경직성과 분리주의적 분열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는 선교지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현지인 교회의 주체적 성장과 자립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한국교회의 신앙생활 방식을 표준화하고 강요하는 행태를 조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역사적 공교회가 '전통'의 기준으로 합의하고 규정한 보편성(universality), 고대성(antiquity), 일치성(consensus)의 원리를 고려할 때, 서양선교

사들로부터 전달받은 신앙을 그저 특정 문화에서 생산된 수입 신학일 뿐이라고 폄하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다.

최근 작고한²³ 선교역사가 앤드루 월스(Andrew Walls)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토착화 원리'와 '순례자 원리'의 이중구조로 설명한다.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와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와 신학도 그것이 속한 문화와 토양에 뿌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토착화 원리'라고 한다. 이는 문화에 뿌리박은 친문화성과 특수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이 원리와 늘 긴장상태에 있는 또 다른 원리가 있다. 이를 월스는 '순례자 원리'라 부른다. 복음은 시공간의 문화를 초월하여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킨다. 시공간의 문화를 경유하여 전파되면서도, 그 문화에 종속되지 않는다. 문화를 초월하는 초문화성과 보편성도 복음전파의 본질이다.²⁴

월스의 또 하나의 통찰 중 하나는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복음이 전파될 때의 상황을 '번역'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는 이 '번역'의 시초가 바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으로 육화한 성육신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시공간과 문화를 초월하시던 신적 존재가 시공간과 문화 안으로 '번역'되어 들어와서 인간이 되었다.

인간으로 번역된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 때문에 새로운 번역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바로 이 성육신 때문에 기독교는 당연히 다양성을 떨 수밖에 없다...번역이라는 신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적절한 대응이 바로 회심이다.²⁵

이어서 복음을 각 사람이 난 곳의 언어(방언)로 들을 수 있게 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성경의 모국어 번역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자, 인간이 이어가는 선교역사의 시발점이라고 월스는 지적한다. 선교역사는 곧 번역의 역사다. 다른 말로, 기독교 역사 전체는 신앙이 각 지역 문화와 상황에 성공적으로 번역(혹은 적응)한 일련의 과정을 증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이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전달될 때에는 반드시 번역이라는 과정이 처음부터 일어난다. 여기서 번역이라는 용어는 다른 말로 토착화, 상황화, 문

²³ 월스는 올해 8월 12일에 스코틀랜드 애버딘에서 9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²⁴ 앤드루 월스, 『세계 기독교와 선교 운동』, 병연상 역 (서울: IVP, 2018), 37-41.

²⁵ 월스, 『세계 기독교와 선교 운동』, 75-82.

화화 등의 용어로도 대체 가능하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어를 활용하자면, 자신학화로도 표현될 수 있다. 월스의 요지에 따르자면, 이런 번역, 상황화, 토착화, 자신학화 과정은 전달자나 수용자가 의도적으로 시도하고 노력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곧 선교의 시작이므로, 인간 대리자들이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토착화, 번역, 자신학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²⁶

III. "제3의 길": 이미 거기에 있는 자신학화 유산

II장에서 필자는 한국교회에 자신학화가 필요치 않다거나, 한국교회의 자신학회 논의가 무용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교회가 외국인인 '서양' 선교사가 수출한 신학을 일방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오류 없고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신학으로 수용했다는 주장의 과도한 일반화에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전제를 토대로 진행되는 자신학화 논의에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선교라는 초문화적(cross-cultural), 상호문화적 과정(intercultural process)이 진행될 때, 이 상황을 전달자나 수용자가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번역, 상황화, 토착화, 그리고 자신학화가 일정 수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등의 저서로 유명한 미국 교회사가 마크 놀(Mark A. Noll)은 1986년에 앤드루 월스의 선교역사적 통찰을 접하면서, 학문 여정을 인도하는 새로운 북극성 하나가 자신을 위해 떠올랐다고 회고했다.²⁷ 월스의 통찰에 크게 빛진 놀은 선교 역사와 세계기독교학 분야에서 정립된 월스의 논지를 자신의 전공인 미국교회사에 적용하는 연구를 2000년대부터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 열매로 2009년에 미국기독교와 세계기독교의 관계를 다루는 책을 한 권 썼다. 2009년에 나온 이 책은 한국에서는 『복음주의와 세계 기독교의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에 번역 출간되었다.²⁸ 부제 "미국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 종교가 되었는가"에서 알 수 있듯, 놀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기 세계 선교 운동을 미국인 선교사들이 주도했기에, 선교로 세워진 비서양 세계의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미국 기독교를 닮았다는 데 주목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단지 현상과 통계로

²⁶ 마크 놀, 『나는 왜 세계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배덕만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6), 176-182.

²⁷ 놀, 『나는 왜 세계기독교인이 되었는가』, 171f.

²⁸ 놀, 『복음주의와 세계 기독교의 형성: 미국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 종교가 되었는가?』, 박세혁 역 (서울: IVP, 2015).

다루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이 상황의 의미를 선교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세계 개신교 선교계의 자신학화 논의에 등장하는 서양 기독교는 주로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과 미국 기독교를 포괄하는 영어권 기독교를 뜻한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의 경우는 미국 영향력이 압도적이므로, 주로 미국기독교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논의는 한국 기독교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²⁹

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오늘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성장한 기독교의 특징이 미국기독교의 특징과 유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 비서양 국가의 기독교는 미국기독교의 단순한 복제품인가?

월스의 통찰에 영향을 받은 놀은 세계 어떤 곳에서 번성한 기독교도 미국인 선교사가 전수한 미국기독교와 똑같은 복제품일 수 없다고 확고하게 주장한다. 선교현장에서 뿌리 내린 토착 기독교는 전달자가 이식한 그대로의 기독교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토양의 상황에 맞게 자라난 기독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현지인이 적극적인 번역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전유한 기독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기독교와 오늘날 세계기독교의 유사성의 원인을 분석한 놀은 이는 미국선교사가 직접적이고 절대적으로 현지 기독교 형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17-8세기 개척시대에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가져온 기독교가 개척지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한 역사적 상황이 19-20세기 비서양 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이 지역들이 처한 역사와 문화 상황과 유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형식적이고 법적인 정교일치와 국교제도가 유지된 유럽 기독교세계(Christendom)와는 달리, 개척지이자 정교분리 국가인 미국에서는 여러 부흥운동으로 인해 유럽보다 더 개인적, 자발적, 민주적, 실용적, 창의적, 모험적, 경험적인 신앙과 세계관이 유행했다. 이렇게 형성된 미국식 복음주의가 세계선교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었을 때,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 제도도 거의 동시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비서양 국가들의 사회 환경이 미국 초기의 사회 상황과 비슷해졌다. 이것이 미국과 유사한 유형의 기독교가 세계에서 태동하게 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탄생한 비서양 각 지역 기독교가 미국기독교의 복사판은 아니다. 이런 중심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 놀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미국 복음주의와 한국 복음주

²⁹ 다음 단락부터 나오는 내용은 『복음주의와 세계 기독교의 형성: 미국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 종교가 되었는가?』, 243-254 에 실린 필자의 해설 일부를 발췌하고 요약한 것이다.

의의 상호 관계 및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증하는 9장은 이 책 전체 논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증명하려는 사례연구에 해당한다.

놀은 미국기독교와 한국기독교의 공통점으로 일곱 가지를 든다. 첫째는 자율적인 현지 교회다. 미국교회는 18세기에 영국에서 독립한 후 자립교회를 이루었다. 이 경험은 첫 선교사 입국 후 한 세대가 가기 전인 1920년대부터 선교사 주도 교회에서 한국인 자치교회로 바뀌기 시작한 한국교회와 유사하다. 둘째, 미국교회는 독립혁명 당시 투쟁의 전면에서 반제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기독교를 형성했다. 한국교회도 3·1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민족의 투사가 되었다. 셋째, 미국에서는 영어성경이 미국인의 의식과 가치관 전반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고, 미국기독교를 성경기독교로 만들었다. 한국 기독교의 형성과정에서 한글 번역이 끼친 영향도 절대적이었다. 넷째,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기독교는 근대성과 동일시되었다.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전근대적 유물로 인식되었다. 미국에서는 식민지 시절부터 독립 이후까지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가 동반자로 인식된 독특한 서양 국가였다. 한국도 많은 지식인이 기독교를 근대성, 서구성, 진보성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수용했다. 다섯째, 미국에서는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이 기독교의 성격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이 그 역할을 했다. 여섯째, 부흥이 두 나라 기독교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기여했다. 대각성이 미국기독교를 개인주의적, 회심주의적, 체험적, 행동주의적인 복음주의 종교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한국에서도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이 미국과 유사하게 한국기독교 형성에 기여했다. 일곱째, 한 때 외국인의 선교를 받았던 미국과 한국이 독립 이후 세계선교 주도국으로 변모한 과정도 유사하다.

놀은 이런 역사적 경험의 유사성을 과장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한다. 두 나라 기독교의 차이점도 지적한다. 미국은 독립 전이나 후나 내내 기독교문명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따라서 한국처럼 기독교 전파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외세에 지배당하며 당한 고통을 미국은 한국만큼 크게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만난 막강한 동양 종교와 철학 등이 미국 역사에서는 없었다. 또한 상호 유사한 면이 많기는 하지만, 미국기독교가 일방적으로 한국기독교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 등이다. 결론적으로, 놀은 한국기독교에 끼친 미국기독교의 영향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영향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역사적 배경과 상황의 유사성 때문에 미국기독교가 지난 200년 동안 발전시켜 온 그 유형을 한국기독교가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놀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무난해 보인다. 그는 월스 같은 선교학자들의 통찰을 빌려 미국기독교와 해외 기독교와의 관계를 해석한다. 이를 통해 그는 미국인 선교사를 문화적 제국주의의 첨병으로 보는 탈식민주의자의 비판의 오류를 피하려 한다. 동시에 미국 문화와 미국기독교의 영향력을 절대화하는 미국 기독교인과 한국 및 비서양 지역의 보수 기독교인의 편견도 제거하고자 한다. 문화와 신앙이 일방적으로 이식되거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앤드루 월스와 마크 놀을 통해 자신학화 논의의 다면성을 배울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선교계에서 자신학화에 대한 논의가 눈에 띄게 진일보했다. 발표된 글의 양도 늘었고, 다루는 소재와 주제의 폭과 깊이도 달라졌다. 학문 방법론을 선교학에서 철학과 인류학으로, 이어서 역사학으로 확장한 것도 의미가 크다. 문화와 상황의 상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전해준 신학을 절대 변개해서는 안 될 보편적 표준신학으로 주장하며, 모든 토착화 및 자신학화 논의를 혼합주의적 다원주의로 정죄하는 이들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반대의식으로,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온 선교사의 기독교를 일방적으로 서양의 수입신학으로 폄하하고 거부하는 것도 기독교의 유산과는 맞지 않는다. 월스와 놀의 방법은 이들 중간에 있는 '제3의 길'이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 순간부터 기독교의 번역과 상황화와 토착화, 자신학화가 시작되었다. 기독교는 선교를 통해 문화와 지리의 경계를 넘어 늘 상호문화화를 경험했다. 한국 기독교 역시 그 시작부터 자신학화를 경험하며 성장했다. 한국교회에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할 때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상황화의 유산을 되돌아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도 좋을 것이다.